

박대통령기념사업단 소관

주요사업

1 박정희 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 사업

- ◇ 조국근대화의 기틀을 다진 시대를 조명하고
- ◇ 박대통령 출생·성장과정 및 근면·검소한 정신 부각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상모동 171번지 생가주변
- 사업량 : 부지 77,622㎡ (23,480평), 건물 753㎡ (228평)
- 사업기간 : 2006년 ~ 2010년 (5년간)
- 사업비 : 19,874백만원 (도 2,500 시 17,374)

구분	계	기투자	향후	비고
합계	19,874	6,204	13,670	
부지매입	6,991	4,491	2,500	
지장물보상	1,287	1,217	70	
공사비 (건축,토목,조경등)	9,800		9,800	
기타	1,796	496	1,300	감리비 776 문화재시굴 120 농지조성 286 부대비 등 118

- 주요사업내용
 - 시대촌건설 : 1920년대 (보릿고개), 1970년대 (새마을운동중흥기)
 - 추모관 (26평), 내자의 공원, 상징숲·먹감나무숲 조성
 - 원형생가 재현 및 현존생가 보존 등

□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

- 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('05. 12. 26)
-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고시 ('06. 2. 6 도보 고시)
- 보상계획 공고·열람 및 보상 ('06. 7월부터)
- 사업부지 확보현황 (88% 확보)

시설결정	국유지 (무상귀속대상)	제외 (수원백씨종중임야)	매입	미매입	비고
72필지	9	4	53	6	
23,480평	3,546	2,209	14,804	2,921	

- 토지보상 반대로 부지확보 지연 : 2필지 673평 (소유자 2명)
- 문화재 시굴조사 ('07. 상반기)
- 주민 문화시설 및 영상관, 전시관 증축 (서울기념관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계획)

② 박대통령 추모 · 기념사업 추진

-
- ◇ 조국근대화와 오늘의 번영과 민족문화 창달을 구현한 박대통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범시민 송모행사 거행
 - ◇ 박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선양, 보전 발전시키고 국민대화합 축제의 한마당 문화행사를 통한 구미시민의 자긍심 고취
-

□ 제28회 추모제 거행

- 일 시 : 2007. 10. 26(금) 10:00
- 장 소 : 박대통령 생가 분향소
- 참석인원 : 2,000명

□ 제90회 탄신 기념행사

- 일 시 : 2007. 11. 14(수) 11:00
- 장 소 : 박대통령 생가앞 주차장
- 참석인원 : 2,000명

□ 제8회 대한민국정수대전 Up-Grade

- 목 적
 - 국내 최고의 대전으로 승화하여 문화구미 위상 제고
 - 정수대전을 통한 박대통령 위업 국내 · 외 선양
- 국내 · 외 우수작가 및 작품 유치
 - 국내 · 외 유명 작가 참여 유도 : 2,000여명
 - 심사위원 : 국내 최고 권위자 위촉
- 홍보강화 : 예술전문지 및 언론 매체 활용
- 시 상 식 : 2007. 11. 14(수) 박정희체육관
- 사업비 보조 : 100백만원

시 책 사 업

① 「박정희학 연구센터」 설립

- ◇ 박정희대통령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리더쉽, 통치철학, 업적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(정리)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박대통령생가주변공원 내 (잠정)
- 사 업 량 : 「박정희학 연구센터」 설립
- 사업기간 : 2007 ~ 2009
- 사업내용
 -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리더쉽, 통치철학, 업적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리 (연구), 전시 공간 조성

□ 향후 추진계획

- 1단계 추진
 - 박대통령 연구위원회 구성, 추진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 등 수립
 - 공원화사업 완료 후 시대촌 (새마을중흥기)에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수집 및 연구된 자료 전시
- 2단계 추진 (박대통령생가주변공원 완료 후)
 - 서울 상암동 기념사업 무산 될 경우
 - 서울 전시관 계획을 박대통령생가주변공원 내에 건립
 - 서울 상암동 기념사업이 추진 될 경우
 - 서울기념사업회의 사업내용에 크게 중복 되지 않도록 박대통령 생가주변공원 내에 연구센터 및 전시(정수대전 입상작 포함) 공간 조성

□ 기대효과

- 구미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첨단 디지털 산업문화와 접목, 사상과 철학이 살아있는 구미시 구현